

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 수급 추이에 관한 연구

-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

윤 애 란 · 김 숙 희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Study on the Change of Food Supply and Demand in According to Population Growth

Ea-Lan Yoon, Sook-H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trends of population growth which has reflected direct effect of the ratio of food self sufficiency in Korea between the year of 1910 and 1980.

Author divided the whole years between 1910 and 1980 into five different periods : colonial period from 1910 to 1945, post colonial period from 1945 to 1950, Korean war period from 1950 to 1955, post Korean war period from 1955 to 1960, fast economic growing period 1960~1980.

The ratio of national food self sufficiency has been profoundly affected by dual factors : rate of population group and increment of GNP which reflect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tal food production never reached the level of population growth ratio in Korea. As a result food demand and supply has shown imbalanced condition which leads to import foods from outside country to compensate food shortage.

The increment of GNP sharply cut down the cereal consumption. The consumption of fish, milk, eggs and meat reflected to increase since 1970.

서 론

한나라의 국민 식생활은 그 나라의 식량공급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거시적으로 볼때 한나라의 식량수요는 인구와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에 따라 결정된다¹⁾.

일찌기 「맬더스」는 「인구론」이란 그의 저서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밖에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인구증가율이 식량생산율을 상회하여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산업으로써, 한국인의 식량은 주로 곡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곡식이 생산되는 땅의 소유면적이 바로 부의 기준이 되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여 부의 소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고 나가서 소유한 부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에 계급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상 인구의 성장이 있었으며, 사회내의 계급간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빈과 부의 계급이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910년 한일합방이 있은 후 급증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은 식량의 확보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식민지 한국의 식량사정은 더욱 더 악화일로에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이 분열되고 남한의 인구만으로 한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6.25동란으로 인해 많은 인구의 희생이 있었으며, 이후 50년대말에는 Baby Boom이 일어나 인구 증가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식량자급이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지표인 GNP증가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구조절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되기도 하였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면서 식량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10년 한일합방이후 1980년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인구 성장 추이를 고찰해보고 이에 따르는 식량자급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종 식품의 섭취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인구성장 추이 · 식량수급 추이 · 식품소비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즉 인구 · 농축산물 수급현황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와 조사자료 그리고 이들 자료들을 분석한 관련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 현재까지 약 80여년간의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층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기하지는 못하였지만, 다량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등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종합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결과

1. 우리 나라의 인구성장 추이

우리 나라의 인구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합병한 후 그들의 식민지 통치 목적으로 호적제도를 개정하고 매년「현주 주민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1910년부터이며²⁾, 현대적인 의미의 「인구 센서스(Census)」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25년이였다³⁾. 그 이후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 센서스」는 일제말기에 전쟁을 위한 인력동원 목적으로 1년을 앞당겨서 1944년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1925년부터 시작해서 해방전까지 매 5년 간격으로 다섯번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945년 이후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1945년 이전 자료들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후는 남한에만 국한된 자료들이다⁴⁾.

1)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시대

일제시대 인구추이에 관한 자료로는 국세조사 인구통계와 현주호구조사 인구통계 그리고 년말상주 인구통계등이 있는데⁵⁾, 일반적으로 국세조사의 결과가 가장 신뢰되고 있다.

년말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1910년에서 1943년까지의 인구성장율은 년평균 1.89%를 나타내었고, 국세조사는 년평균 1.5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⁶⁾, 이런 성장율은 그 이전시대의 성장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Table 1).

한편, 이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약탈당한 많은 농민들이 고용과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는 유출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다⁶⁾. 이들 유출인구의 가장 큰 거주지는 만주와 일본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유출되는 인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경제적 수탈에 의한 유출이외에도 정치적 망명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큰 비중을

Table 1. Population growth during 1910~1945⁶⁾

| Year | Census Population | | Population year-end count | |
|------|-------------------|------------------------|---------------------------|------------------------|
|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 1910 | | | 13,128,780 | |
| 1915 | | | 15,957,630 | 2.33 |
| 1920 | | | 16,916,078 | |
| 1925 | 19,020,030 | 1.45 | 18,543,326 | 1.20 |
| 1930 | 20,438,108 | 1.67 | 19,685,587 | 1.54 |
| 1935 | 22,208,102 | 1.18 | 21,246,848 | 1.56 |
| 1940 | 23,547,465 | | 22,954,563 | 2.04 |
| 1943 | | 1.82 | 24,389,719 | |
| 1944 | 25,120,174 | | | |

Table 2. Population growth during 1945~1950⁶⁾

| Year | Census Population | | Population year-end count | |
|------|-------------------|------------------------|---------------------------|------------------------|
|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 1944 | 15,879,110 | | | |
| 1945 | | | 16,947,130 | 8.57 |
| 1946 | | 4.90 | 19,369,270 | 2.67 |
| 1947 | | | 19,886,234 | 0.71 |
| 1948 | | | 20,027,393 | |
| 1949 | 20,166,756 | | | |

차지하여 3.1운동 이후에는 1919년이전에 비해 거의 3배나 격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또 일제는 일본으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여, 일본으로 부터 해방된 1945년에는 한국인의 재외 인구수가 실제 한국내 한국인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였다고 추정되고 있다⁷⁾.

2)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해방직후

이 시기는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인구의 이동에 의한 사회증가가 특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⁶⁾. 즉 광복과 함께 일본·중국등 해외에 유출되었던 많은 수의 인구가 일시에 고국으로 귀환하고, 또 북한으로부터 남하한 유입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히 인구가 성장하여, 5년간 약 430만명이상의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2).

3) 1950년에서 1955년까지의 동란기

이 기간은 1950년의 6.25동란으로 인한 전사자·실종자가 많았으며, 6.25동란을 계기로 많은 이북동포가 월남하여 인구의 감소와 증가가 함께 혼합된 시기로 보고 있다⁶⁾. 즉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은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여 단지 남한의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민간인 약 100만명 그리고 군인 약 30만명 합계 약 130만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이 중에서 부상을 제외한 사망이나 행방 불명만으로도 합계 약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²⁾. 한편, 사변 당시 공산치하의 학정을 피해서 월남한 피난민은 약 150만명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따라서, 이 시기는 불과 1.02%의 비교적 낮은 수

Table 3. Population growth during 1950~1955⁶⁾

| Year | Census Population | | Population year-end count | |
|------|-------------------|------------------------|---------------------------|------------------------|
|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 1949 | 20,166,756 | 1.02 | 20,356,000 | 0.42 |
| 1950 | | | | |
| 1951 | | | | |
| 1952 | | | | |
| 1953 | | | | |
| 1954 | | | | |
| 1955 | | | | |

Table 4. Population growth during 1955~1960⁶⁾

| Year | Census Population | | Population year-end count | |
|-------|-------------------|------------------------|---------------------------|------------------------|
|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Population | Percentage of increase |
| 1955 | 21,502,386 | 2.90 | 20,202,256 | 2.58 |
| 1956 | | | 20,724,026 | 2.88 |
| 1957 | | | 21,321,136 | 2.76 |
| 1958 | | | 21,909,742 | 4.86 |
| 1959 | | | 22,973,992 | |
| 1960* | | | 24,989,241 | |

*Contained foreigners

준의 인구 성장율을 보여 준다(Table 3).

4) 1955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

이 시기는 6.25동란후의 사회적 안정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최고의 증가율의 기록하여 흔히 Baby Boom의 시기라고도 부른다.

동란중 지연된 결혼과 출산이 활발해져 출생율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서 개발된 보건 의료의 확대 보급으로 사망율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⁹⁾, 2.9% 라는 해방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Table 4).

5) 1960년이후의 경제성장시기

우리 나라 인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인구 성장이 급속한 전환과정을 겪게 되었다. 즉 1961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의 보급과 더불어 비로소 우리나라의 인구는 인위적 억제에 의한 출생력의

저하를 보기 시작하여, 사망력의 지속력 지하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였다⁹⁾.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 인구는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인구 증가율이 2%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Table 5).

한편, 이 기간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되어온 인구 도시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영양상태의 향상이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우리 나라의 식품수급 추이

1)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후 일본은 일본내에서의 부족한 식량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미국수탈을

Table 5. Population growth after 1960

(unit : Thousand Persons)

| Year | Census population | Population midyearcount | Percentage of increase per 100 persons |
|----------|-------------------|-------------------------|--|
| 1960. 12 | 24,954 | - | - |
| 1961 | - | 25,766 | 2.97 |
| 1962 | - | 26,513 | 2.86 |
| 1963 | - | 27,262 | 2.78 |
| 1964 | - | 27,984 | 2.61 |
| 1965 | - | 28,705 | 2.55 |
| 1966. 10 | 29,160 | 29,436 | 2.51 |
| 1967 | - | 30,131 | 2.34 |
| 1968 | - | 30,838 | 2.32 |
| 1969 | - | 31,544 | 2.26 |
| 1970. 10 | 31,435 | 32,241 | 2.18 |
| 1971 | - | 32,883 | 1.97 |
| 1972 | - | 33,505 | 1.87 |
| 1973 | - | 34,073 | 1.77 |
| 1974 | - | 34,692 | 1.71 |
| 1975. 10 | 34,679 | 35,281 | 1.68 |
| 1976 | - | 35,860 | 1.64 |
| 1977 | - | 36,436 | 1.63 |
| 1978 | - | 37,019 | 1.60 |
| 1979 | - | 37,534 | 1.53 |
| 1980. 11 | 37,420 | 38,124 | 1.57 |
| 1981 | - | 38,723 | 1.56 |
| 1982 | - | 39,326 | 1.53 |
| 1983 | - | 39,929 | 1.46 |
| 1984 | - | 40,513 | 1.34 |
| 1985 | 40,432 | 41,056 | 1.25 |
| 1986 | - | 41,569 | 1.24 |
| 1987 | - | 42,082 | 1.21 |

Source : Economic planning board

Note : Excluding foreigners.

위한 기본작업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¹⁰⁾, 막대한 토지의 산림지를 국유지로 편입시켜, 그 국유지를 일본인에게 불하함으로써 토지수탈을 도모하였으며¹¹⁾, 대부분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고, 3차에 걸치는 「산미증산계획」을 수립하여 미곡의 증산을 이루었고, 증산된 막대한 양의 식량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¹²⁾.

일제시대 곡물의 생산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여 증산되었지만 연간 1인당 소비량은 반대로 감소하였다¹⁰⁾.

일제하에서의 식량 자급율은 수요보다 생산량이 훨씬 초과하여 194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자급율이 10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은 대일 수출의 증가와 전시하에서의 곡물

Table 6. Food supply and demand during 1915~1945¹⁵⁾ (Unit : 1,000Suk)

| Year | The amount of production | The amount of consumption | Percentage of self-supply |
|------------|--------------------------|---------------------------|---------------------------|
| 1915~1919* | 36,734 | 33,870 | 108.5 ^(*) |
| 1920~1924* | 38,843 | 34,724 | 111.9 |
| 1925~1929* | 38,229 | 34,405 | 111.1 |
| 1930~1936* | 41,701 | 33,985 | 122.7 |
| 1937 | 56,034 | 33,156 | 169.0 |
| 1940 | 44,877 | 32,739 | 137.1 |
| 1942 | 33,468 | 32,271 | 89.8 |
| 1945 | 31,007 | 27,154 | 114.2 |

소비의 통제에 인해서¹³⁾,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였다(Table 6).

일제시대에는 미곡이 일본에 약탈되어 대부분 수출되고 밀·조·보리등의 잡곡이 식량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1인당 곡물 소비량의 감소와 더불어 소비 곡물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해방직후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양단됨에 따라서 일본·만

주·중국 본토등 해외에서 약 150만명의 동포가 귀환하였고 또 북한에서 약 80만명의 인구가 남하함에 따라서 국내 양곡 소비인구가 폭증하였고, 일제하에서 억눌려 왔던 양곡소비가 증가한 반면, 막대한 대일수출로 국내에는 양곡의 재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따라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호양곡을 도입하였지만, 1인당 곡물소비량은 일제시대에 비해서 매우 낮은 1.09~1.19石을 유지하였다.

3) 1950년에서 1955년까지의 동란기

광복후 식량소비 인구의 급증과 무절제한 식량소비 풍조로 인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서 정부는 1949년부터 1951년까지 농업증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6.25동란의 발발로 인해 계획되던 추진되지는 못하였다¹⁴⁾.

이 기간중에 식량수요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¹³⁾, 식량생산은 전쟁으로 인해서 경지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국내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외국으로 부터 곡물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¹⁵⁾, 그 결과 식량 자급율은 1950년 101%을 제외하고는 70~98% 수

Table 7. Supply and demand during 1950~1955¹⁶⁾ (Unit : 1,000Ton(1,000Suk))

| Year | The amount of demand | | | The amount of supply | | | | percentage of self-supply (%) |
|------|----------------------|----------------------------|-------------------|---------------------------|-------------------|----------------|-------------------|-------------------------------|
| | demand of that year | carry forward to next year | Total | Bring forward former year | production | Income | Total | |
| 1950 | 3,248 (22,411) | - | 3,248 (22,411) | - | 3,290 (22,701) | 47 (324) | 3,337 (23,025) | 101 |
| 1951 | 3,372 (23,267) | - | 3,372 (23,267) | - | 3,164 (21,832) | 208 (1,435) | 3,372 (23,267) | 94 |
| 1952 | 2,836 (19,568) | - | 2,836 (19,568) | - | 2,395 (16,525) | 441 (3,043) | 2,836 (19,568) | 85 |
| 1953 | 3,323 (22,929) | - | 3,323 (22,929) | - | 2,324 (16,036) | 999 (6,893) | 3,323 (22,929) | 70 |
| 1954 | 3,799 (26,213) | - | 3,799 (26,213) | 215 (1,483) | 3,392 (23,405) | 192 (1,325) | 3,799 (26,213) | 95 |
| 1955 | 3,805 (26,254) | - | 3,805 (26,254) | 447 (3,084) | 3,279 (22,625) | 79 (545) | 3,805 (26,254) | 98 |

Table 8. Food supply and demand during 1955~1961¹⁵⁾

(Unit : 1,000Suk)

| Year | The amount of demand | The amount of supply | The amount of insufficiency | percentage of self-supply |
|------|----------------------|----------------------|-----------------------------|---------------------------|
| 1955 | 27,013 | 26,451 | 562 | 97.9 |
| 1956 | 28,197 | 24,335 | 3,862 | 86.3 |
| 1957 | 28,943 | 22,545 | 6,398 | 77.9 |
| 1958 | 29,256 | 24,868 | 4,388 | 85.0 |
| 1959 | 30,114 | 29,596 | 518 | 98.3 |
| 1960 | 31,822 | 31,492 | 330 | 99.0 |
| 1961 | 31,143 | 28,111 | 3,032 | 90.3 |

준에 머물렀으며¹⁶⁾, 1인당 식량 소비량도 1.01~1.19石 정도였다(Table 7).

4) 1955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

정부는 1953년 이후 1962년까지 2차에 걸쳐서 농업증산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식량의 부족양상을 타개하고, 식량경제의 자립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외국도입에의 의존도를 감소하고자 하였지만¹⁵⁾, 1956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1959년에는 9월의 태풍업습으로 인해서, 1960년에는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 기간중에도 식량의

자급화를 기하지 못하여 매년 식량난을 면치 못했으며, 이 부족량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위주로 한 외국도입으로 충당함에 따라서¹⁵⁾, 식량 자급율은 77.9%~99.0% 수준에 머물렀다(Table 8). 1인당 식량 소비량은 1.21~1.45石으로 약간 증가하였다(Fig. 1).

5) 1960년 이후의 경제성장시기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진 종합경제계획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식량의 외국 의존도를 불식하고 식량의 자급화를 기하기 위해 식량증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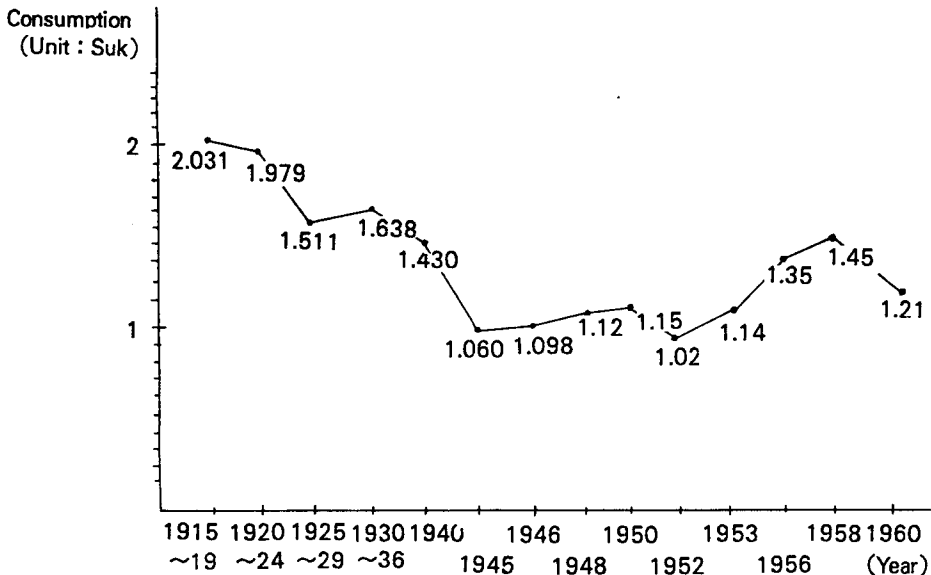


Fig. 1. The change of total cereals consumption per capita¹⁷⁾.

(Unit : 1,000Ton (1,000Suk))

Table 9. Food supply-demand in the 1960's¹⁶⁾

| Year | The amount of demand | | | | The amount of supply | | | | percentage of self-supply |
|------|----------------------|----------------------------|-------------|-------------------|---------------------------|-------------------|------------------|-------------------|---------------------------|
| | demand of that year | carry forward to next year | Export | Total | Bring forward former year | production | Income | Total | |
| 1962 | 5,976 (41,234) | 912 (6,293) | 64 (442) | 6,952 (47,968) | 1,041 (7,183) | 5,429 (37,460) | 482 (3,326) | 6,952 (47,969) | 91 |
| 1963 | 6,138 (42,352) | 627 (4,326) | 7 (48) | 6,772 (46,727) | 912 (6,293) | 4,637 (31,995) | 1,223 (8,439) | 6,772 (46,737) | 76 |
| 1964 | 6,408 (44,215) | 1,042 (7,190) | 14 (97) | 7,464 (51,502) | 627 (4,326) | 5,996 (41,372) | 841 (5,803) | 7,464 (51,502) | 94 |
| 1965 | 7,313 (50,460) | 1,220 (8,418) | 7 (48) | 8,540 (58,926) | 1,042 (7,190) | 6,864 (47,362) | 634 (4,375) | 8,540 (58,926) | 94 |
| 1966 | 7,089 (48,914) | 1,304 (8,998) | 67 (462) | 8,460 (58,374) | 1,220 (8,418) | 6,715 (46,334) | 525 (3,622) | 8,460 (58,374) | 95 |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지만¹⁵⁾, 식량 생산증가율이 매우 미약하여 식량 수요증가율을 따르지 못하여 매년 외곡도입으로 충당했다¹⁵⁾.

제 2 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도 역시 식량의 자급화가 크게 대두되었지만¹⁵⁾, 이 기간중의 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은 감소한데 반해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서 외곡의 도입이 불가피하여 식량자급율은 매우 부진하여 69.4~86.7% 수준을 나타내었다.

제 3 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중에는 「석유파동」과 「식량파동」으로 식품의 nationalism 및 식량의 무기화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서 주곡의 자급화가 최대의 정책과제로 제기되어, 식량의 획기적인 증대와 미국의 소비 절약에 의한 주곡의 자급화 달성이 농정의 최대 목표로 추진되었다¹⁵⁾¹⁶⁾.

그러나, 1970년까지 80%수준을 유지해온 식량의 자급율은 1971년과 1973년사이에 보리와 쌀의 생산부진으로 70%수준까지 떨어졌으나, 1974년 이후 쌀의 신품종 개발로 인해서 쌀의 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73%까지 회복되었다.

제 4 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도 식량증산을 농정의 최우선시책으로 삼고 생산증대에 힘썼지만¹⁶⁾, 70년대 중반의 쌀의 증산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보리 생산도 급감하여 자급율이 크게 저하되어 1980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Table 9, 10). 한편,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르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소비패턴이 고급화내지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인당 GNP수준이 500\$ 이하였던 시기에는 곡물의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75년 1인당 GNP가 5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육류 공급능력을 초월하여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Table 11, Fig. 2).

1인당 곡물 소비는 1971년까지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71년에는 212.5Kg에 달하였으나, 1972년부터는 곡물 소비량이 감소되어 1975년에는 193Kg · 1980년에는 170.0Kg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는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1960년에는 3.5Kg · 1965년에는 4.6Kg · 1970년에는 5.3 Kg · 1975년에는 6.4Kg · 1980년에는 11.46Kg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유와 계란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

Table 10. Food supply-demand in the 1970's^(a) (Unit : 1,000Ton(1,000Suk))

| Year | The amount of demand | | | The amount of supply | | | percentage of self-supply | | |
|------|----------------------|----------------------------|-------------|----------------------|---------------------------|-------------------|---------------------------|---------------------|-------|
| | demand of that year | carry forward to next year | Export | Total | Bring forward former year | production | | Income | Total |
| 1972 | 9,613 (66,330) | 1,994 (13,759) | - | 11,607 (80,088) | 1,731 (11,944) | 6,807 (46,968) | 3,069 (21,176) | 11,607 (80,088) | 71 |
| 1973 | 9,427 (65,046) | 2,193 (15,132) | - | 11,620 (80,178) | 1,994 (13,759) | 6,538 (45,112) | 3,088 (21,307) | 11,620 (80,178) | 69 |
| 1974 | 9,487 (65,460) | 1,951 (13,462) | - | 11,438 (78,922) | 2,193 (15,132) | 6,674 (46,051) | 2,571 (17,740) | 11,438 (78,922) | 70 |
| 1975 | 9,996 (68,972) | 2,262 (15,608) | - | 12,258 (84,580) | 1,951 (13,462) | 7,295 (50,335) | 3,012 (20,783) | 12,258 (84,580) | 73 |
| 1976 | 10,381 (71,629) | 2,607 (17,988) | - | 12,988 (89,617) | 2,262 (15,608) | 7,692 (53,075) | 3,034 (20,935) | 12,988 (89,617) | 74 |
| 1977 | 9,613 (66,330) | 2,543 (17,547) | - | 13,673 (94,344) | 2,607 (17,988) | 7,244 (49,984) | 3,822 (26,372) | 13,673 (94,344) | 65 |
| 1978 | 11,691 (80,668) | 2,858 (6,541) | 80 (552) | 14,629 (100,940) | 2,543 (17,547) | 8,485 (58,546) | 3,601 (24,847) | 14,629 (100,940) | 73 |
| 1979 | 14,036 (96,848) | 2,698 (18,616) | - | 16,734 (115,465) | 2,858 (19,720) | 8,405 (57,994) | 5,471 (37,750) | 16,734 (115,464) | 60 |
| 1980 | 12,892 (88,955) | 2,898 (19,996) | - | 15,790 (108,951) | 2,698 (18,616) | 7,546 (52,067) | 5,546 (38,267) | 15,790 (108,951) | 59 |

Table 11. GNP per capita

| Year | Percentage of GNP growth | Per capita GNP(\$) |
|------|--------------------------|--------------------|
| 1961 | | 82 |
| 1966 | 7.5 | 125 |
| 1971 | 9.5 | 285 |
| 1976 | 9.8 | 800 |
| 1981 | 7.3 | 1735 |
| 1984 | | 1998 |

Source : Economic planning board(1962~85)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1975년 이후에는 소비 비중이 감소하여 쇠고기 소비편중이 점차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

결론 및 요약

일제시대에는 곡물의 국내생산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식량자급율이 100%을 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일제의 산미증상계획에 따른 미곡의 대일수출 증가로 한국인의 1인당 곡물소비량은 매년 감소하여 심각한 식량고를 겪었다. 해방직후에는

인구의 자연증가보다 인구의 사회증가, 즉 해방과 더불어 만주와 일본으로 부터의 유입인구와 이복으로 부터의 월남인구가 증가하여 식량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국내 식량 생산이 좋지 못하여서 구호양곡에 의존하여야만 했으며, 1950년대 초에는 1.02%의 낮은 인구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으로 인한 군량미 확보와 난민 구호양곡등 식량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으로 부터의 구호양곡이나 도입양곡에 의존하여야만 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Baby Boom에 힘입어 인구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하면서 식량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매년 식량난을 겪었고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도입하여 부족량을 충당하여야만 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었지만 절대 인구의 수는 증가함에 따라서 식량 수요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급증은 식량수급의 차질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식량 자급도 저하라는 큰 문제를 야기시켜 해마다 식량을 외국으로 부터 도입하여야만 하였다.

한편, 경제개발 성공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향상은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와, 국민 1인당 GNP가 500\$ 이하였던 시기에는 곡물소비가 큰 비중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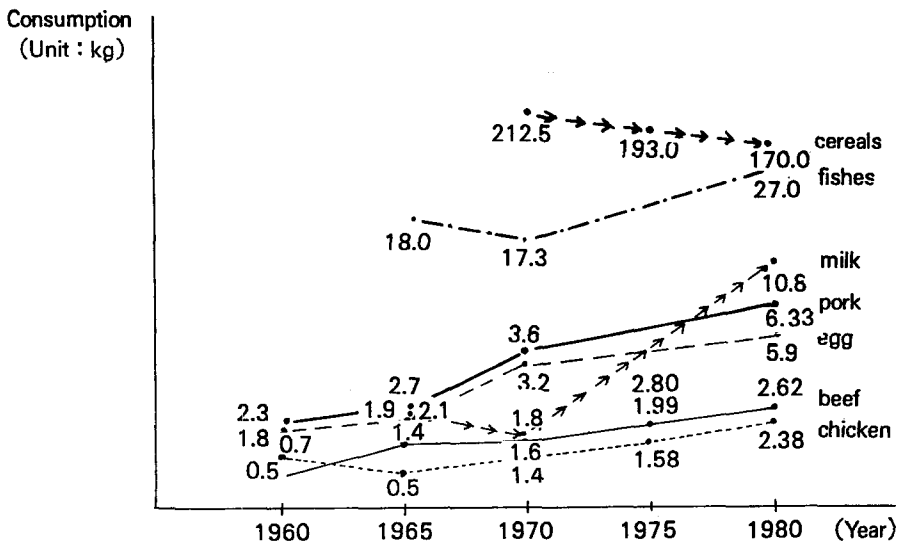


Fig. 2. The change of food consumption per capita¹⁵⁾¹⁷⁾.

지했지만 1인당 GNP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곡물 소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육류·우유·계란등의 소비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References

- 1) 김숙희. 한국 영양교육 및 정책. 한국영양학회지 제 20 권 제 3 호, 1987
- 2) 이광혜.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서울:수문사, 1985
- 3) 홍사원. 한국의 인구와 인구정책. 서울:인구개발원, 1978
- 4) 이국환.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5) 김준호. 일제하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6) 윤종주. 인구학. 서울:한일문고, 1974
- 7) 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雄二郎, 1965
- 8) 박규상. 인구론. 서울:박영사 1980
- 9) 보건연감. (주)보건신보 1984
- 10) 정덕기. 한국 근대농정사 연구. 형설출판사 1982
- 11) 나정민. 일제의 대한 식민지 농업정책과 농촌경제, -1930년대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12) 박경식.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13) 박 경. 식량의 수요공급과 식량소비의 합리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 14) 손종호. 한국 농정의 발전사. 인성출판사 1980
- 15) 농수산부. 한국 양정사. 1978
- 16) 김 철. 식량의 과제. 대장각, 1984
- 17) 윤석인. 식량 소비구조와 자급도 증진방안. 고려대학교 식량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84